로컬플러스

익산소방서 남중교당 소방안전교육

익산소방서(서장 강원석)는 지난 6일 원불교 남중교당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의 체험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배양하고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화재발생 시 적절한 대처방법·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익산소방서 올해 특수시책인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은 기다리는 소방이 아닌 찾아가는 소방으로써 소방안전교육을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닌 시민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종교시설과 같이 각계·각 층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찾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후보 선거공약

국민의당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사진)는 지난 7일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방과 후 돌봄교실,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역아동 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나 유사 기능과 중복으로 예산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는 "가칭 '교육복지서비스 통합추진단'을 설립하여 중복사업 통합과 집중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저소득층과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늘푸른도서관 시민문화강좌

군산 시립도서관·늘푸른도서관은 '2016년 상반기 늘푸른도서관 시민문화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어린이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대표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마련됐다.

시립도서관은 오는 3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초등학생 대상 6개반, 성인 대상 3개반을 개설하며, 늘푸른도서관은 3월 28일부터 6월 23일까지 6개 문화강좌를 진행한다. 수강생 모집은 시립도서관 7일부터, 늘푸른도서관은 14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료는 30,000원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농기센터, 화상병 예방 지원

관내 배 농가 사전방제용 약제 무상으로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가 화상병 예방을 위해 관내 배 농가에 사전방제용 약제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천안·화성·제천 등 일부지역 과수에서 발생한 화상병의 추가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을 신청한 배 농가에 약제를 지원해 동계방제와 함께 사전방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화상병(火傷病)은 주로 사과·배 등에 발생하며 작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되어 조직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는 병이다.

화상병에 발병된 나무는 급격히 고사하며 전염속도가 빨라 발병과원은 과원내 식재된 나무 전부를 매몰해야 한다.

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는 배꽃 개화 전까지 방제 가능하며 기계유유제(3.2~3.11)와 혼용살포가 가능하나 석회유황합제(3.28.~4.8.)와는 7일 이상 간격을 두고 살포해야 약해 발생이 없다. 또한 친환경 재배 농가는 석회유황합제 또는 보르도액을 1회 살포하여 화상병을 예방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일단 병이 발생되면 급속도로 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기에 알맞은 작업과 처리를 통해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상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454-531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주민 공모

일반·기획 2개분야 1억원 규모로 20개 선정 최대 500만원 지원

군산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원도심(월명동, 중앙동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주민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오는 25일까지 일반공모와 기획공모 2개 분야로 진행되며,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주민제안사업도 함께 공모한다.

일반공모는 도시재생 사업지에 거주하거나 소재지가 있는 3인 이상의 주민, 사업체 종사자, 단체면 신청 가능하며, 기획공모는 거주지나 소재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3인 이상의 주민 또는 단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접수된 공모사업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된다.

이번 공모사업의 총사업비는 1억원 규모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소규모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총 20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박인수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공모에 지역 주민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할 우수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도시재생사업으로 활기찬 군산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도시재생 선도지역 주민공모사업'으로 거리공연, 프리마켓, 담벼락꾸미기, 꽃사랑나무사랑 등 6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 주제 신입생 성폭력예방교육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학생상담센터는 대학생활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2016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性)인지력 향상을 위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된 교육은 상담센터 소속 교내강사를 비롯해 익산경찰서,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과도 연계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성폭력예방교육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주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와 대학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유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자신이 가진 성(性)의식을 점검하고, 나를 존중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기본으로 하는 소통이 성폭력예방을 위한 자세임을 강조했다.

강의를 진행한 군산성폭력상담소 김혜영 소장은 "학생들의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교육이 학생들의 성(性)인지력 향상에 기여하고 건강한 대학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의 적극적인 성폭력예방교육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통해 성폭력 없는 학교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익산=장양원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중국인 관광객 군산 방문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의 군산 방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군산시는 지난 6일 중국여행사 단체 관계자 50여명이 군산과 서울관광을 위해 석도국제훼리를 통해 군산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그간 전북도와 군산시의 해외관광교역 상담회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계자 초청 설명회 등 대중국 관광홍보 마케팅의 결과다. 이날 시는 방문단을 환영하며 꽃다발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문화공연행사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물 판매행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진포해양테마공원 등 군산의 대표관광지를 소개하고 중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군산방문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군산여행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사전 답사차원의 방문으로, 향후 지속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군산의 대표관광지를 적극 홍보해, 군산항을 통한 중국관광객의 군산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국정시책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

군산시는 7일 김양원 부시장 주재로 '2016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국정평가 대상 부서장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일반행정, 사회복지 등 9개 분야 중 해당지표 102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성과제고를 위한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국정시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서별 매뉴얼에 의한 순기표 작성, 평가지표 산식분석에 의한 자료관리, 관리카드 작성 및 정기점검을 통한 국정시책 평가업무의 성과제고는 물론, 군산시의 위상제고를 위한 추진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양원 부시장은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자치단체의 행정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군산시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시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담당부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로 실적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장신~모현택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순조

익산시는 모현동 기쁨에 교회 옆 장신택지~모현택지간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기쁨에 교회옆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장기간 도로 미개설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노선이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이 지역을 이용하는 차량들은 골목길이용 또는 우회 통행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2015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16년 15억원을 들여 편입토지 15필지2,591㎡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한 뒤 2017년 말까지 장신택지~모현택지구간 도로연결 공사를 마무리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